

2023. 12. 13.(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2133-9324
공공미술사업팀장	강연태	2133-2709
누리집(SNS)	instagram.com/seoulismuseum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8쪽

'이 겨울 한강이 생동한다' 서울시,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싱싱겨울》

- 추위에도 생동하는 자연을 모티프로 한 야외 공공미술 전시 《싱싱겨울》
- 보온 기능을 갖춘 투명 에어돔에 대형 공공미술 작품 전시로 새로운 볼거리
 - ▶ 설치작품 〈숨 쉬는 꽃〉 〈끝없는 나무〉 〈부유(BUYU)〉 〈물결의 시〉 4점
 - ▶ 시민참여 프로그램 〈겨울의 작은 숲〉 〈연결하는 겨울, 찾집〉 〈낮선 두 사람의 차 마시는 거리〉 3건
- 12월 16일(토)부터 2024년 1월 7일(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전시

올 겨울, 새로운 공공미술이 한강에 펼쳐진다. 서울시는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쉽고 친근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2023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를 《싱싱겨울》을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12월 16일(토)부터 2024년 1월 7일(일)까지 개최한다.

- 운영기간 : '23.12.16(토)~'24.1.7(일) (평일 12-19시, 주말 11~20시)
- 전시문의 : 02-6952-4907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ismuseum)

이번 전시는 겨울철 한강에 예술작품을 통해 색다른 풍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 주제 《싱싱겨울》은 움츠리기 쉬운 겨울철에 생동감 있는 작품을 통해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겨울 한강도 예술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대형 투명 에어돔 3동을 설치하여 돔 내·외부에 자연을 모티프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에어돔은 지름 12~15m, 높이 5~6m 규모로 난방 기능도 갖추고 있어 관람객은 추위 걱정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돔을 통해 보는 한강과 어우러진 예술작품이 겨울철 새로운 볼거리로 다가올 전망이다.
- 각 돔마다 예술작품으로 재해석된 꽃과 나무들이 설치되어 각각 꽃동, 나무동, 정원동을 구성한다. ▲(꽃동) 지름 8m 높이 5m 크기의 거대 공기조형물 <숨쉬는 꽃>(작가 최정화) ▲(나무동) 플라스틱 망과 공 수만 개가 연결된 설치작품 <끝없는 나무>(작가 최성임) ▲(정원동) 침엽수와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한 플랜테리어(plant+interior) 작품 <부유>(작가 박소희)이다.
 - 거대한 붉은 꽃 모양의 <숨쉬는 꽃>은 공기를 주입하는 기계장치가 연결되어 마치 숨 쉬듯 꽃잎이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작품이다.
 - 양파 등 채소를 담은 망과 어린이 장난감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공 수만 개를 활용해 나무 6그루를 형상화한 <끝없는 나무>는 관객들이 나무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작품이다.
 - 푸른 침엽수와 다양한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하여 돔 내부 공간을 장식한 <부유>는 가을과 봄 사이 식물이 부유(浮游)하는 계절로서 공간을 구성한다.
- 돔 외부에는 지난 9월 시민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 당선된 아이디어 중, 실제 작품으로 제작된 ▲<물결의 시>(팀 A.P.T.)가 한강을 배경으로 설치된다. 또한 공모에 함께 선정된 ▲<겨울의 작은 숲>(작가 해우)이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12월 23, 24일(일 2회/회당 8인 대상) 진행된다.

- <물결의 시>는 길이 12m 높이 3.68m의 흐르는 강물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LED조명이 작동하여 16시부터 19시까지 푸른색과 흰색으로 변화하며 물결의 흐름을 보여준다.(주말에는 20시까지 작동)
- <겨울의 작은 숲>은 헌 옷을 활용해 새로운 쓰임의 도구로 만들어 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나뭇잎이 모여 숲이 펼쳐지듯 옷조각에 담긴 기억을 되새기며 나만의 작은 숲으로 재탄생시킨다.(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12월 16일 전시 인스타그램에 신청 안내문 게시 예정)

□ 전시 기간 중 상시 운영되는 ▲<연결하는 겨울, 찻집>(작가 스몰 바치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계절 재료로 만든 차를 마시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차 경험 공간’을 제공한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끈으로 연결된 두 개의 찻잔으로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맛과 향을 음미하는 ▲<낮선 두 사람의 차 마시는 거리>가 12월 30, 31일(일 2회/회당 8인 대상) 진행된다.

- <연결하는 겨울, 찻집>은 현장에서 바로 체험할 수 있으며 차 재료는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생분해성 컵 활용/차 재료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낮선 두 사람의 차 마시는 거리>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12월 16일 전시 인스타그램에 신청 안내문 게시 예정)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2023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 《싱싱겨울》은 그간 시도된 적 없는 겨울철 한강을 공공미술의 영역으로 새롭게 확장하는 전시이다. 전시 주제 ‘싱싱겨울’처럼 겨울에도 시민들이 공공미술을 통해 움츠림 없이 생생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 1. 전시 및 프로그램 개요, 포스터, 공간 배치도
2. 출품작 및 작가소개

■ 전시개요

- 전 시 명 : (국문) 2023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 《싱싱겨울》
(영문) Feel Fresh in Winter
- 전시기간 : 2023. 12. 16.(토) ~ 2024. 1. 7.(일)
 평일 12:00~19:00 / 주말 11:00~20:00 (*전시 기간 중 휴일 없음)
- 전시장소 :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86)
 '신사나들목'에서 도보 2분(약 200m)
- 작품 및 프로그램 구성 : 조각, 설치 등 4점, 시민참여 프로그램 3건
- 오시는 길
 - 버스 : '신사중학교' 정류장(143, 345, 440, 472, 3011, 4312, 4318번) 하차
 - 지하철 : 3호선 압구정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신사나들목'으로 이동
 - 자가용 : 잠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주차
- 전시 안내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seoulismuseum](https://www.instagram.com/seoulismuseum)
- 전시문의 : 전화 02-6952-4907(월~금, 10:00~18:00)
- 주최/주관 :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요

제목	일정	참여인원	내용	신청방법
<겨울의 작은 숲> (해우 작가)	12.23(토) / 12.24(일) 일 2회, 총 4회 진행 1회차 14:00 - 15:00(60분) 2회차 15:00 - 16:00(60분)	회당 8인	헌 옷 등을 활용한 티 코스터 만들기	링크를 통한 사전 신청 (선착순)
<낮선 두 사람의 차 마시는 거리> (스몰 바치 스튜디오)	12.30(토) / 12.31(일) 일 2회, 총 4회 진행 1회차 14:00 - 15:00(60분) 2회차 15:00 - 16:00(60분)	회당 8인	다양한 재료로 본인만의 티백을 만들어보고 시음	
<연결하는 겨울, 찻집> (스몰 바치 스튜디오)	12.16(토) ~ '24.1.7(일) 평일 12:00 - 19:00 주말 11:00 - 20:00	평일 40인 주말 80인	다양한 계절 재료로 만든 차 시음(*상시 운영)	재료소진 시 조기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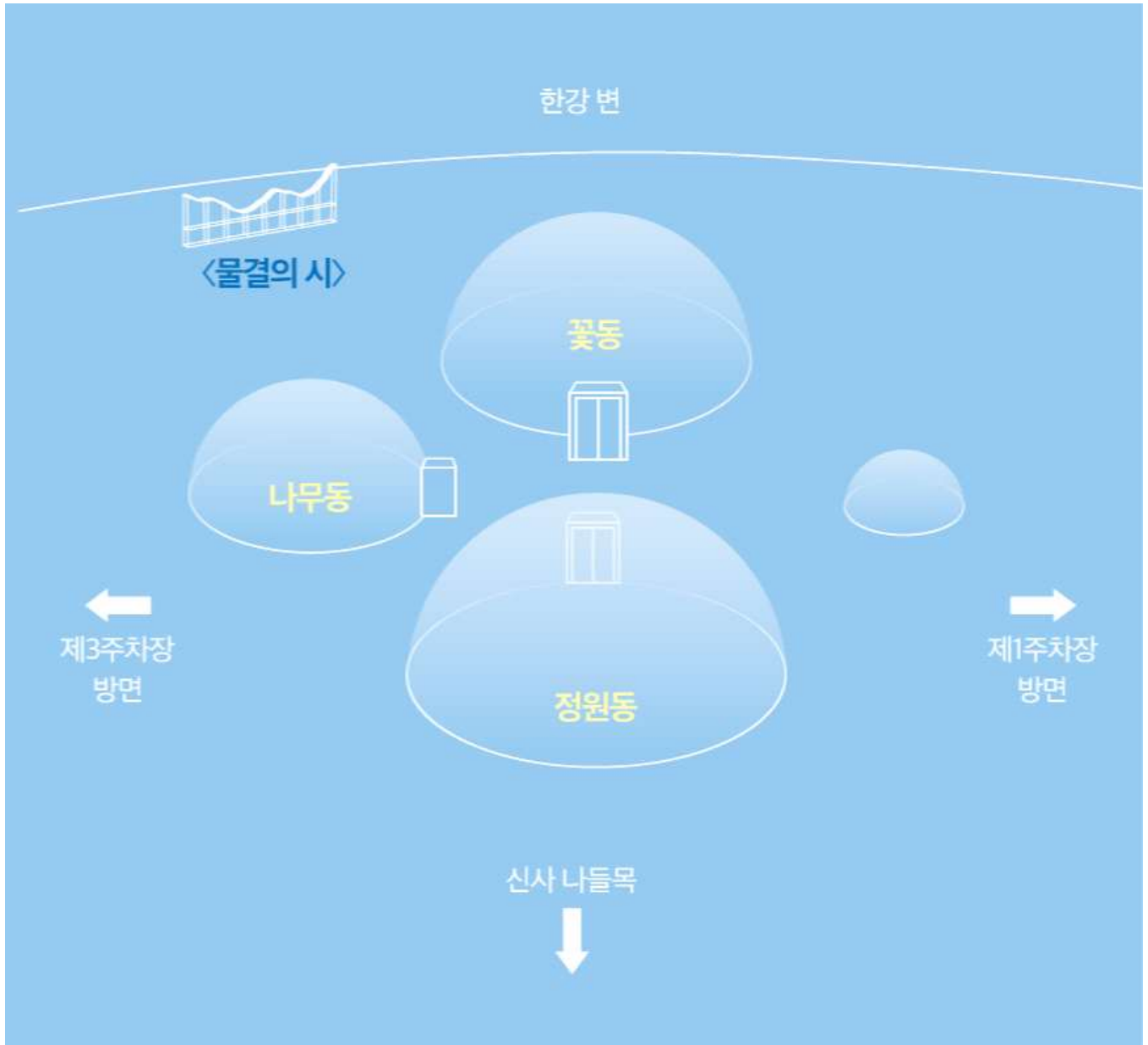
※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모두 '정원동'에서 진행

※ 사전 신청 프로그램 접수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12.16(토) 인스타그램에 게시 예정

□ 전시 포스터





□ 공간 배치도



□ 에어돔 내부

작품명/작품 참고이미지	작품 설명	작가 소개
 <p><숨쉬는 꽃> 지름 8m×높이 5m, 패브릭, 모터. 2018년 프랑스 안시 시청 앞 설치 전경. 작가 제공</p>	<p>거대한 크기의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진 인공 꽃은 공기를 주입하는 기계장치로 무한히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 피었다 시들어 버리는 진짜 꽃과 인공 꽃(숨쉬는 꽃) 중 어느 것이 진정한 일회용인지 되묻는 작가의 대표작.</p>	 <p>최정화(1961~)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가슴시각개발연구소 소장. 1990~2000년대 한국 동시대 현대미술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p>
 <p><끝없는 나무> 철제 프레임, PE망, 플라스틱 공, 스틸고리, 털실 2018 청계천 야외 공간 <붉은 나무> 설치 전경. 작가 제공</p>	<p>농산물을 담은 용도로 쓰이는 플라스틱 망과 어린이 장남감용 플라스틱 공을 연결해 만든 작가의 대표작. 2015년 발표 이후 다양한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다. 작품명 '나무'는 생명의 전과정인 생성과 소멸, 재생을 나타내며, 수식어인 '끝이 없다'는 생명의 연속선상인 숲, 우리, 역사를 은유한다.</p>	 <p>최성임(1977~) 이화여대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 회화판화 전공 석사. 2012년 갤러리 도스 개인전 《집으로 가는 길》로 활동 시작,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 참여</p>
 <p><부유(BUYU)> 절화(생화), 프리저버드 플라워, 드라이플라워. 2023년 전남도립미술관 <화,경> 설치 전경 ©hongkiwoong</p>	<p>식물에게 겨울은 부유(浮游)하는 계절이다. 고유의 형과 색으로 싱싱하고 생생하기 위해, 가장 아름답기 위해, 계절의 하이라이트인 가을과 봄 사이에서, 떠돈다. 엘트라바이 박소희 작가의 보태니컬 인스톨레이션. 이 겨울의 정서를 그녀의 "부유(BUYU)" 사이에 생동하도록 띄워보낸다.</p>	 <p>박소희 (1981~) 엘트라바이(Elle travaille)라는 브랜드로 오랜 기간 플랜테리어를 진행해 온 작가는 계절성, 소재감, 색상, 선의 모양 등 식물이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작품으로 표현해 왔다.</p>

□ 에어돔 외부

작품명/작품 참고이미지	작품 설명	작가 소개
 <p data-bbox="129 564 549 712"><물결의 시>(가로 12m * 높이 3.68m* 폭 0.6m) 철파이프, 천, LED조명. (시뮬레이션 이미지) *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품</p>	<p data-bbox="628 300 991 698"><물결의 시>는 산수화의 기운생동함을 바탕으로,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푸른색의 선으로 표현했다. 바람에 따라 유유히 흔들리는 천은 마치 작품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낮에는 햇빛으로, 저녁에는 변화하는 조명과 함께 훑날리는 천의 이미지는 한강의 생동감을 전달한다.</p>	 <p data-bbox="1023 479 1458 712">팀 A.P.T. (Every Art, People, Thing) 국민대 입체미술과 출신 작가 3인으로 구성. 이번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한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p>

□ 시민참여 프로그램

작품명/작품 참고이미지	작품 설명	작가 소개
 <p data-bbox="129 1274 517 1346"><겨울의 작은 숲> 헌 옷, 끈 *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품</p>	<p data-bbox="564 931 1038 1339"><겨울의 작은 숲>은 나뭇잎 하나 하나가 모여 거대한 숲이 펼쳐지듯 작은 천 조각조각으로 자신만의 작은 숲을 엮어내는 작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늘어나고 얼룩져 쓰임을 다했거나 유행이 지나 입지 않게 된 헌옷을 잘라내어 엮는 과정을 통해 작은 옷조각에 담긴 기억을 떠올려보고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고민 해본다.</p>	 <p data-bbox="1066 1128 1458 1352">해우 (1985~) 홍익대 미대 목조형가구학과 졸업. 아크릴 물감을 실처럼 뽑아 쓰는 기법으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추상 및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다.</p>
  <p data-bbox="145 1966 528 1995">작품 및 작가 사진 ©Yolanta C. Siu</p>	<p data-bbox="564 1361 1038 2047"><연결하는 겨울, 찻집> 둘이 함께 잔과 잔이 끈으로 연결되어 차를 마셔보는 식경험을 통해서 친밀함의 거리를 느껴보고 다양한 계절 재료를 차로 마시며 한해 동안 열심히 쓴 몸과 마음을 다시 채우는 연결하는 겨울, 찻집 <낮선 두 사람의 차 마시는 거리> 다양한 차의 재료를 낚새로 탐색하며 잃어버린 몸의 본능을 깨워 나를 위한 차를 블렌딩한 후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차 마실 거리를 정하고 끈으로 연결된 잔으로 각자의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친밀한 시간을 가져본다. 차를 마시는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와 현상들을 즐겁게 경험해본다.</p>	 <p data-bbox="1066 1675 1458 2024">스몰 바치 스튜디오 (Small Batch Studio) 강은경 디자이너(1980~) 음식을 매개로 발생하는 관계와 현상들에 관심을 두는 강은경 식경험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2016년부터 음식경험의 기획 및 운영, 교육과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p>